

시선

사설

김영란법, ‘나쁜관행’을 직면하는 계기로 삼아야

부탁과 청탁의 경계는 어느 지점인가. 지난 달 28일 첫 시행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속칭 ‘김영란법’이 우리 사회에 파져 묻고 있는 질문이다. ‘법은 최소한의 도덕’이라는 정언을 상기할 때, 청렴을 제도화 한 이 법의 존재는 거꾸로 우리 사회가 얼마나 청렴하지 못한 사회인가를 보여주는 지표가 된다. 실제로 지난 1일 세계경제포럼(WEF)은 매해 발간하는 세계경쟁력보고서를 통해 우리나라가 OECD 가입국 중 아홉 번째로 부패한 나라라고 지적한 바 있다.

그래서 2012년 경 이 법안이 최초 추진될 당시만 하더라도, 이 법은 대학의 일상과는 큰 상관이 없는 법으로 여겨졌다. 기껏해야 일부 부정한 사학재단 관계자 정도가 저촉될 뿐, 대부분의 일반 대학 구성원은 부정이나 비리와는 무관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김영란법 시행 첫 날 경찰에 접수된 신고 1호가 ‘캔 커피를 받은 교수’였듯, 대학사회는 이미 이 법안에 예기치 못한 큰 영향을 받고 있다.

부정청탁이나 금품수수와 같은 비리행위는 대개 ‘관행’의 이름으로 지탱된다는 점에서, 이것은 같은 ‘사회 규범’에 속하는 관습의 일부를 법이 강제하며 벌어지는 혼란으로 해석할 수 있다. 법조문은 있되 관례는 없는 모호한 상황이 관습에서 법을 분리해내는 메스의 날을 무디게 하는 탓도 크지만, 더 엄격한 강제규범인 법이 그간 관행이라 여겨져 온 습관들을 광범위하게 파괴하고 있는 것 자체가 대학 구성원의 충격과 혼란을 야기하는 측면이 더 강하다 하겠다.

그래서 대학 측은 적절한 법적 가이드라인에 대한 교직원 교육을 강화하는 움직임에 나서고 있다. 지난 21일과 29일에 양 캠퍼스 교직원에게 김영란법 관련 교육을 실시한 데 이어, 지난 달 27일에는 김영란법 법률 관련 대학 질의응답 사례 모음을 부서메일로 발송하며 잘못된 ‘관행’에 대한 단속에 나서고 있다.

하지만 ‘잘못된 관행’이란 대체로 상급자의 요구에서 기인하기 보다는 하급자의 반 자발적 수용에 의해 암묵적 환경에서 대물림된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학내 권력관계에서 하급자에 해당하는 학생들에 대해 면밀한 교육에 나서는 것도 시급해 보인다. 비위(非違)에 대한 예방은 어느 일방이 아닌 카운터 파트 양측에 대한 실제적 교육이 가장 효과적이기 때문이다.

상술했듯, 김영란법은 사회에 정착하기 위해 꽤 오랜 시간을 필요로 하는 신생 법안이다. 적어도 유의미한 분량의 판례가 쌓이기 전까지는 많은 혼란을 동반할 수 있다. 그럼에도 이 법의 본래 취지를 잘 살려 우리학교 공동체에 도입한다면, 김영란법의 시행은 그간 관행적으로 이뤄져왔지만 언젠가는 없어져야 하던 행위들 - 예컨대 학생 또는 학부모의 교수 접대 행위, 혹은 대학원 논문심사 시 학생과 교수 간에 오고가던 각종 거마비와 금품, 식사제공 등의 암묵적 행위들을 일소하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부탁과 청탁의 경계는 어느 지점인가. 이 물음은, 김영란법의 도입으로 혼란해진 캠퍼스가 반드시 자문해야 할 질문이 됐다. 우리 안의 인지되지 못했던, 또는 자정되지 못했던 ‘나쁜 관행’을 직면하는 기회로 삼는다면, 지금 당장 혼란을 주고 있는 이 법이 그리 나쁠 것만도 없지 않겠는가.

체대 폭행사건 발생

어떤 식으로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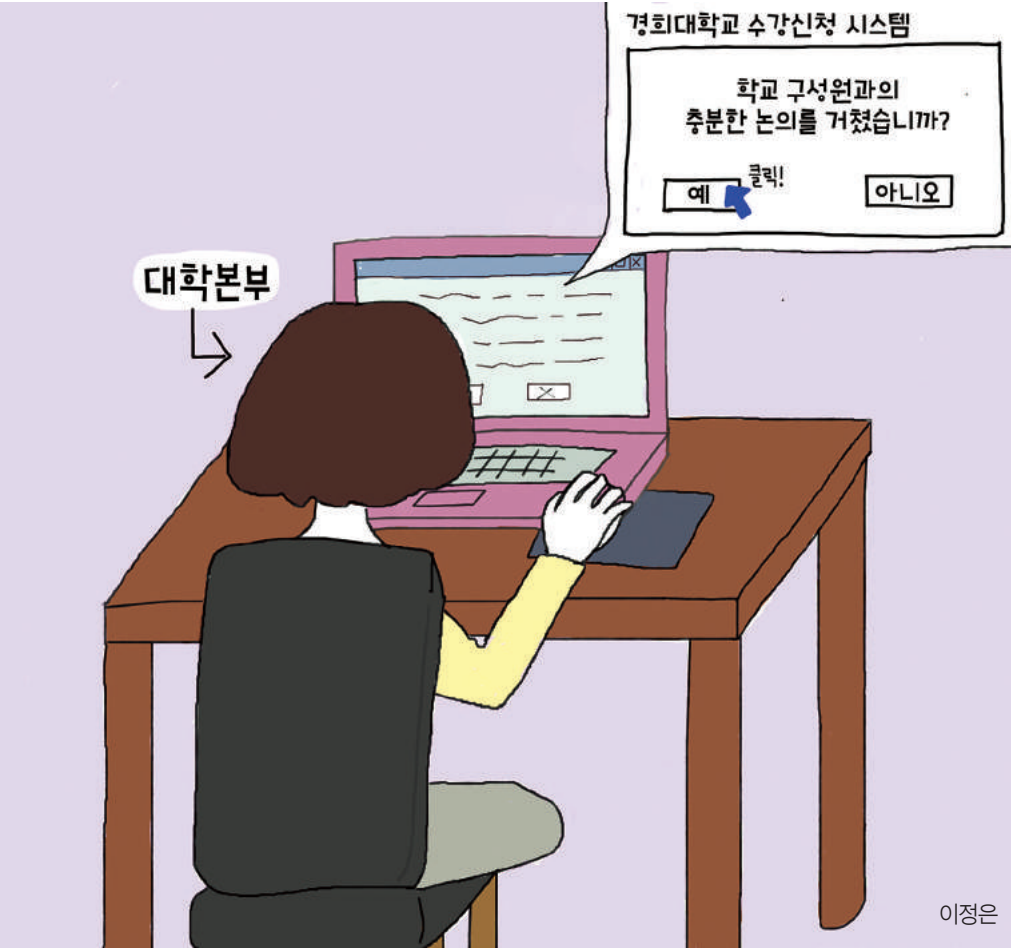
폭행은 용납 안돼

미디어 여론동향 2016. 9. 20 ~ 9. 30

여론동향팀 khunews@khu.ac.kr

지난달 22일 서울캠 오비스홀 대회의실에서 UN세계평화의 날을 기념한 ‘제4회 후마니타스 글쓰기의 날’이 개최됐다. (‘제 4회 후마니타스 글쓰기의 날’ 개최/대학주보 온라인, 2016.9.23) 이번 행사는 지정 도서에 대한 서평과 에세이를 쓰게 했던 기존 행사와는 다르게 ‘평화’를 주제로 자유에세이, 시, 패러디 시 등의 부문으로 구성됐다. 행사는 학생들이 직접 준비한 영상과 연극으로 마무리됐다. 총 18명의 수상자 중 대상에 안병훈(영어학) 군, 최우수상에 김다연(경영학)

만평



이 주의 주제 - 수강신청 제도 변경

말뿐인 소통, ‘형식적’ 회의에 학생은 없었다

김성수 기자
korkeep@khu.ac.kr



수강신청은 새 학기의 시작을 알리는 동시에, 그 결과에 따라 한 학기의 중간과 끝을 좌우한다. 이렇듯 수강신청은 한 학기 학생들의 배움과 직결되는 무거운 사안이다. 그럼에도 수강신청제도에 관한 학생들의 불만은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다. 당장 이번 2학기의 경우만 해도 경영대학 행정실에서 사전공지 없이 4학년에게 전공과목 정원을 우선 배정해 경영대 학생들의 분노를 샀다.

지난 9월 2일 수강신청제도 개선에 관한 회의가 있다는 소식을 듣고 기자는 부푼 마음으로 회의실로 향했다. 특히 이번 회의는 기존의 수강신청제도를 보완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닌, 강의부족이란 근본적인 문제의 해결을 위한 논의였기 때문에 기대가 컸다.

하지만 회의시간은 1시간 30분, 구성원들과의 소통 그리고 이를 통한 수강신청제도의 혁신을 원한다면 학교의 목표를 위해서는 턱없이 부족한 시간이었다. 게다가 이날 회의는 ‘수강신청 제도개선’이란 안전판으로 진행된 것이 아니었다. 이외의 4가지 논의와 함께 이루어졌다. 뿐만 아니라 총 회의시간 1시간 30분 중 30분은 이번 회의를 설명하는데 소요됐다. 부족한 시간 탓에 회의는 결할

기식으로 진행됐고, 당연히 학교가 바라던 소통을 통한 혁신은 부재했다. 실제로 이날 회의의 막바지에서 사회자는 시간이 다 됐으며 자유발언을 자르기에 급급했다. 회의가 끝나고 기자에게 남은 것은 ‘형식적’이라는 느낌뿐이었다.

이날 회의에서 발표된 개선안은 큰 부작용이 예상된다. 수강인원 제한 없는 수강신청 후 강의 수조절 단계에서 신청 인원이 적은 강좌는 폐강되고, 이외의 강좌에서 담당 교수가 수용 가능한 최대 강의 인원과 강의 수를 결정하게 된다. 이는 곧 수요 없는 강의의 폐강으로 이어진다. 이는 학생들이 다양한 강의를 접할 수 있는 기회를 해치게 된다. 심지어 담당 교수가 모든 학생을 수용하지 못한다면, 수용가능 범위 밖의 학생들은 결국 다른 수업을 선택해야 하는 악순환이 이어질 것이다.

그렇다면 수강신청 대란을 멈출 수 있는 방법은 정말 없는 것일까? 문제 해결의 열쇠는 대학 구성원들과의 충분한 소통에 있다. 이번 개선안은 말그대로 시안(試案)일 뿐이다.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대학 구성원들과의 논의를 거쳐 보완하면 된다. 우리학교는 과거 프라임 사업에서 대학 구성원과의 소통 부족으로 인한 탈락의 고배를 마신 적이 있다. 이 실수를 밑거름으로 하여 대학은 문제를 함께 해결하려고 노력해야 한다. “밀어붙일 테니 믿고 따라와 달라”는 식의 발상은 너무 구시대적이다. 우리학교는 대학 구성원들과의 소통이 ‘걸림돌’이 아닌, 문제 해결의 ‘디딤돌’이란 것을 명심해야 한다.

양이 선정됐다.

지난달 22일 제 15회 의류디자인학과 졸업패션쇼가 열렸다.(의류디자인학과 졸업작품패션쇼 성황리에 열려/대학주보 온라인, 2016.9.29) 졸업을 앞둔 의류디자인학과 4학년 학생 46명은 영화 ‘마담 프루스트의 비밀정원’에서 모티브를 얻은 ‘향기(Fragrance)’를 주제로 115여 벌의 디자인을 선보였다. 대상은 이진아(의류디자인학 2013) 양이 수상했다.

기계공학과 ‘KHARS(경희자동차연구회)’ 학생들이 ‘대학생자작자동차대회’에서 장려상을 수상했다.(경희자동차연구회 KHARS, 대학생자작자동차대회 수상/대학주보 온라인, 2016.9.29) 한국 자동차공학회와 한국자동차산업협회 공동 주최로 열린 이번 대회에는 전국 100개 대학에서 174개 팀이 출전해 기량을 겨뤘다. 대학생들이 자동차의 설계부터 제작까지 진행하는 대회에서 KHARS는 오프로드, 온로드 부문에서 장려상을 거뒀다.

온라인 커뮤니티 페이스북 대나무숲에는 체대와 관련한 제보가 짧은 시간에 큰 반향을 얻었다. ‘학교를 달리는 단체운동 중 이탈한 학생에게 학생장이 폭력을

행사했다’는 글(#경희숲_16608, 2016.9.25)은 785개의 ‘좋아요’를 받았다. 글쓴이는 ‘폭력은 포장 없이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한다고 생각했다’라며 ‘주먹이 앞서는 시대는 이미 끝났는데 아직 이런 문화가 남아있다는 사실이 무섭고 마음이 아프다’고 전했다. 학생들은 ‘이 분의 용기가 없었다면 또 조용히 넘어갈 일이었다, 대단하다’, ‘무엇이든 간에 폭력은 정당화될 수 없다’, ‘출퇴는 잘못이지만 그에 대한 책임은 본인이 학점으로 받으면 되지 왜 때리는 거냐’, ‘다수가 폭력을 방조하는 현 상태는 당신들 스스로가 규율 있는 체육인이길 포기했다는 증거다’ 등의 일침을 가했다.

지난달 27일 경희의료원에서 ‘후마니타스 암병원 착공식’이 열렸다.(경희대 ‘후마니타스 암병원’ 착공/의학신문, 2016.9.27) 임영진 경희의료원장은 후마니타스 암병원을 통해 암 치료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열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후마니타스 암병원은 2018년 완공을 목표로, 개인별 전담 의료 서비스와 학제 간 복합연계, 감성 케어 등의 특징을 갖출 예정이다. 조인원 총장은 축하사에서 “세계에서 유래 없는 병원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여전한 학내 부조리

이제는 문제를 직시해야

세시봉

이정민 <국제 영상총괄팀장>



9월 26일 페이스북 커뮤니티 경희대학교 대나무숲에는 체육대학에서 일어난 폭행 사건 제보가 올라왔다. 체육대학 A 학과의 전체 공지 시간에 학생장이 다른 학생을 폭행했다는 제보였다. 지난 달에는 외국어대학 B학과 학생장이 페이스북에 올린 글이 논란이 됐다. 글에는 “적당히 해라 어린 것들아... 나도 선배들 00백 만큼 빨고 이 자리에 있는거야”라는 대목이 문제적 장면이었다. 당연한 반응이지만 해당 학과의 강압적인 분위기에 대한 의혹이 일었다.

SNS에 폭행이 제보되고, ‘선배’의 글에 논란이 벌어지는 일은 이제 이상하지 않다. 이미 강압적인 사발식과 기수제로 상징되는 이른바 ‘군대문화’에 대해 지속적인 우려와 비판이 있어 왔기 때문이다. 문제의식 없이 쉬쉬하다가 결국 수면위로 드러난 것이다. 숨겨져 있던 ‘관행’이 일단 그 모습을 드러내면 문제는 건잡을 수 없이 커져버린다.

기자는 지난해 3월, ‘OT비 결산안 공개여부’를 취재했다. 체육대학은 OT비 결산안 내역을 공개하지 않고 있었다. 학생들은 OT비용이 과도하고 불합리하게 책정됐으며 문제를 제기했다. 체육대학 학생회 측은 ‘OT비는 내부에서 정하는 일이며 관습적으로 공개하지 않고 있다’고 답했고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다. 1년이 지나고 상황은 달라졌다. 올해 또 다시 같은 문제가 불거졌고 이번에는 주류 매체까지 의혹을 보도했다. 학생회는 여론의 못매를 맞았다. 뒤이어 사과를 했으며, ‘관습적’으로 공개하지 않는다는 결산안과 영수증까지 공개했다.

그들은 마치 위기 속 타조와 같다

현실에서 외면만 하려고 한다

이런 식의 ‘뜨거운 감자’들을 취재하다 보면 늘 한결같은 반응을 볼 수 있다. 그들은 ‘왜 논란을 가중시키냐’, ‘별거 아닌 일을 왜 더 키우냐’며 오히려 화를 낸다. 종종 기사를 쓰지 말라는 말도 듣게 된다. 이들의 반응을 보면 왜 여전히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지 알 수 있다. 그들은 마치 위기 상황의 타조와 같다.

타조는 위기를 느끼면 모래 속에 머리를 처박는다. 모래 속에 머리를 처박게 되면 타조에게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으며, 다가오면 위기도 보이지 않게 된다. 타조는 위기를 벗어났다고 믿는다. 하지만 머리를 처박고 있으면 박제처럼 멈춰있을 수밖에 없고 금방 사냥당하고 만다. 장두노미(藏頭露尾)다. 머리를 땅에 처박는다고 문제가 사라지지 않고, 해결되지도 않는다. 제논만 가리면 무얼 하겠는가. 대중들의 눈이 있는데.

코앞의 상황만을 도피하려는 모면책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문제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두 눈을 부릅뜨고 문제를 직면해야 한다. 때로는 부끄러울 수도 있고 두려울 수도 있다. 사람들이 질책할 수도 있고 책임을 져야할 수도 있다. 하지만 문제를 덮어두어 발생할 더 큰 문제보다 낫다. 잘못된 게 있다면 인정하고 사과하면 된다. 대안을 내고 문제해결을 위해 논의하자. 도피하기 보단 부딪치고, 더 나은 미래를 개척하자.

알림

대학주보에

당신의 모든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대학주보는 늘 열려있습니다. 여러분이 겪은 모든 일을 이야기해주세요. 무엇이든 좋습니다. 사소한 추억부터 어려운 상황까지 함께 나눠주세요. 늘 당신의 옆에 있겠습니다.

http://www.mediakhu.ac.kr/khunews/inform_us_list.asp



교훈 학원의 민주화 | 사상의 민주화 | 생활의 민주화 경희대학교

대학주보

1955년 5월 12일 창간(주간)

발행·편집인 조인원 | 주간 김해경 | 편집장 김도엽 | 제작/인쇄 중앙일보미디어디자인(주)
구독료 1년 1만원 | 구독 02-961-0093-4 | 주소정정 02-441-7317(미레기화)
인터넷 대학주보 http://media.khu.ac.kr | 이메일 khunews@khu.ac.kr

서울캠퍼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경희대로 26(회기동) / Tel 02-961-0093-5
국제캠퍼스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덕영대로 1732(사현동) / Tel 031-201-3230-2, FAX 031-204-8121